

# 홍천신문

건강한 노후 · 활기찬 노후 · 일하는 노후 · 행복한 노후

2023년 6월 (제109호)

발행처 홍천군노인복지관  
 발행인 현윤재  
 창간일 2014년 5월  
 주소 강원도 홍천군·읍 태학여내길 80-3  
 전화 033-430-8700 FAX 033-430-8790  
 홈페이지 www.hcknowin.org/

## 복지관 소식

## 제9회 어버이날 행사

# ‘아름다운 오늘, 어버이 꽃이 피었습니다.’



지난 5월 8일 월요일,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홍천군노인복지관 어르신 450명, 북방면 고령자복지주택 어르신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곳에서 당일 10시부터 제9회 개관 기념 및 어버이날 행사 ‘아름다운 오늘, 어버이 꽃이 피었습니다.’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홍천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아동들이 어르신들께 달아드렸고, 해맑은 어린이집 아동 공연과 아코디언 반, 노인복지관 직원, 시니어 예술단, 지역 가수 이진·꽃송이·홍지나의 공연으로 이뤄졌다. 또한, 부대행사로 수타사 다도회의 다도 나눔과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네일아트 및 손 마사지를 진행하였고, 고령자복지주택 내

에서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홍천지사 회원들의 봉사활동으로 행사의 풍요로움을 보태어 인산인해를 이뤘다.

어버이날 행사를 위해 지역사회 기관, 단체의 도움으로 공연 중간중간 경품 추첨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전달하였으며 식사로는 떡과 과일이 더해진 식사를 제공해 드렸다. 북방고령자주택 거주 어르신 중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어르신은 집에 방문하여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떡을 전달해 드렸다.

홍천군노인복지관 현윤재 관장은 “복지관이 정상 개관하면서 어버이날 행사를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우리 모두의 어버이이시기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올해에는 북방면에 고령자복지주택과 함께 복지관이 개설되면서 어르신들이 거주지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 노인복지관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활기가 가득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 어버이날 행사 후원 업체 및 개인

-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
- ▲한국전력공사 홍천지사
- ▲아하그린푸드
- ▲그린플라워
- ▲바잉마트
- ▲연봉리제빵소 로스터리 카페
- ▲대명종합광고
- ▲(사)이웃
-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 ▲성원컴퍼니
- ▲복지관 김창열 운영위원
- ▲복지관 김경순 직원
- ▲복지관 지병임 회원

## 수타사 신도회

# 수타사 신도회 오승훈 회장, 이달의 으뜸봉사상 수상



지난 5월 4일 홍천군자원봉사센터의 홍천군 자원봉사 릴레이 출발식 개최와 함께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이날 홍천 대한불교조계종 수타사 오승훈 신도회장은 이달의 으뜸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수타사 오승훈 신도회장은 갈마자율방범대, 홍천나눔미봉사단 등에 속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지속해왔으며, 홍천

군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홍천 관내 복지사각지대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활동으로 도배 및 장판 교체, 실내외 전기시설 전면 교체 등 맞춤형 주거 개선 봉사활동을 지속해왔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후원도 아끼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 CONTENTS

- 02 - 노인장기요양보험
- 03 - 노년기 질병
- 04 - 노인복지 현황과 대책

- 05 - 홍천 산나물 축제
- 05 - 양곡관리법 개정안
- 06 - 홍천 거리농경문화

- 06 - 한국의 금융과 자본(6)
- 07 - 사라지는 슬레이트 지붕
- 08 - 인생칼럼
- 08 - 복지관 사업



후원계좌 : 국민은행 313501-04-161305 농협 301-0084-3440-11 우체국 200238-01-006584

※보내주신 후원금(물품)은 기부금공제법 제 25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월정사복지재단  
 홍천군노인복지관

**노인장기요양보험**

# 23년 달라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천지사



◇홍천운영센터 이광우 센터장

홍천의 총인구수 68,612명의 30%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20,627명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는 아프지 않고 가족들 곁에서 화목하게 살다가 최대한 존엄성을 지키면서 가능한 최상의 삶으로 인생을 살다가 행복하게 생애를 마감하는 ‘웰다잉 법’일 것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5대 사회보험 중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인정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하면 되나,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장기요양보험 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 조사를 실시하고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 회의를 통해 등급이 결정되고 장기요양 인정서, 장기요양표준이용계획서, 복지용구 확인서를 발급하여, 이 서류를 가지고 재가 기관이나 요양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천지사 건물 1층 홍천 운영센터로 찾아가 이광우 센터장을 만날 수 있었다.

**기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센터장 :** 첫 번째는 노인성 질병으로 척수성 근 위축 및 관련증후군(G12)과 함께 중추 신경계통의 계통성 위축(G13), 다발성 경화증(G35)이 추가되었고, 두 번째는 의사 소견서 제출 양식의 구체화 및 세분화가 이루어졌으며, 세 번째는 특별 현금급여(가족 요양비)가 150,000원에서 22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증(1, 2등급) 수급자 급여 이용량이 확대되었고, 다섯 번째는 치매가족 휴가제가 년 8일 16회에서 9일 18회로 확대되었습니다.

**기 자 :**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센터장 :**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들의 이미지 개선과 안정적인 일자리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급성으로 오는 기질 환자에 대한 단기적인 가사 및 제반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농어촌 일부 소외 지역은 장기요양기관과의 거리가 멀고 서비스 제공 인력의 부족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편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소외 지역의 요

양보호사 발굴 및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 자 :** 마지막으로 노령화 시대 어르신 인구 급증으로 재원은 부족하지 않나요?

**센터장 :** 국가 전체 복지지출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2008년부터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보조금으로 운용되는데 매년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보험료를 매년 인상하고 있으며, 국가의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홍천의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은 공동생활가정 8개, 노인요양시설 11개, 주야간 보호 3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기관 20개, 복지용구사업소 1개가 있어 시설은 충분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어르신은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면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의 한 과정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당당히 맞이하고 ‘웰다잉’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은 진리이므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를 규정에 맞게 잘 이용하고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야 할 것이다.

서행연 기자(bonbon2202@naver.com)

## 노년기 질병

## 나이가 들면 다발하는 질병

인간은 나이가 들면 늙게 되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순리다. 인간의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물리학에서 온갖 존재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질서를 잃는다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있는데,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늙게 되면서 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몸의 시스템에 혼돈이 일어나 여기저기 고장이 잘 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병에 잘 걸리고 회복하기도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병의 위험 인자라고도 할 수 있다. 개인차를 고려하더라도 60대 이상이 되어 신체 기능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물론 젊어서 병사하는 사람도 많지만, 젊은 시절과 비교했을 때 노년기에는 병에 걸릴 위험률이 훨씬 올라간다.

‘생로병사’는 인간은 늙어서 병에 걸리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면 신체 시스템은 노쇠하고 병에도 잘 걸리게 된다. 그러나 노년기에만 볼 수 있는 병이란 노쇠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노인들만 걸리는 병은 아니어도 노년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있다. 70대 후반 이상의 노인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치매나 실족으로 인한 골절, 실금 등 청장년들에게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특유의 노인 증후군이 있다. 면역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젊은 시절과 비교해서 병에 잘 걸리고 낫기도 힘들어진다. 병에 걸리면 체력이 감퇴하고 혼자 살면서 생기는 고독과 같은 사회적 요인까지 합쳐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우울증이 삶의 질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많아진다.

나이가 들면 사용하지 않는 신체 부분의 기능 저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뇌나 몸을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기능이 젊은 사람 이상으로 개인차가 커진다. 노년 세대에게 치매는 종종 사람들 입에 오르며 걸릴 위험이 가장 가까이에 도사리고 있다고 인지된 병이다. 치매를 병명이라고들 생각하는데, 뇌의 기능이 극단적으로 저하된 상태라고 생각한다. 죽음과 직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과는 다른 의미로 치매에 대한 공포감을 가진 사람이 많다. 치매의 가장 뚜렷한 증상은 기억 장애인데, 노화가 찾아오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단순한健忘증과는 명확히 다르다. 치매란 뇌의 기질 장애에 따른 명확한 질환이다. 발병률은 60대에 1~2%이지만, 85세 이후에는 급격히 늘어나서 40%정도까지 오르게 된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노인성



치매의 약 80%를 차지한다. 천천히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뇌세포가 급격히 감소하여 뇌가 위축이 되며 그 결과로 인간만이 가진 고도의 지적 능력을 잃게 된다고 한다.

85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도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문상필 어르신을 모시고 치매에 대해서 답소를 나누어 봤다.

**기 자** : 안녕하세요, 어르신은 참 건강하신 것 같아요.

**어르신** : 그렇게 보이십니까? 듣기가 좋습니다.

**기 자** : 그럼요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어 보이는데요?

**어르신** :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우울증도 있고요.

**기 자** : 많이 힘드시겠어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르신** : 글썄요, 대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 자** : 그런데요 어르신, 혹시 주변에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르신** : 네, 그럼요. 있지요.

**기 자** :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쭙봐도 괜찮을까요?

**어르신** : 우리 안사람이 몇 년 전부터 자꾸 이상하더니 그냥 건망증이 좀 심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치매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기 자** : 그렇군요, 지금 상태는 어떠세요?

**어르신** : 지금은 시간이 가는지,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자신에게 느껴지는 것이라고는 배고픔이라는 것 밖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기 자** : 그러시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럼, 아내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르신** : 내가 간호를 할 수도 없고 감당이 안 되니까 자식들이 요양병원에다 모셨어요.

**기 자** : 마음이 아쁩니다. 어르신,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이경희 기자(Kyung-hee@hanmail.net)

노인복지 현황과 대책

# 초고령 사회, 노인복지 현황과 대책

노년에 대한 용어는 다양하다. 공식적으로 노인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르신이라고 호칭한다. 서양에서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중에는 황금 연령자(Golden Ager)라는 표현도 있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 지혜, 여유로운 삶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표현이다. 노년의 삶은 그래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런 삶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노인 둘 중의 하나는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 초고령 사회가 코앞에 올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노년을 대비하지 못한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나 늙는 것이고, 늙어도 돈이 필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 뻔한 사실에 대해 누구는 잘 대비해서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누구는 '저 나이가 되도록 뭐 했냐'라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 인생을 살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력에 비해 유난히 불행하고 초라하다. 그것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증명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낮은 출산율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노인 빈곤율이 10~20%면 개인의 탓이라고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50%에 육박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노인들이 노후준비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다. 알았지만 철저히 대비할 수 없었다. 자신의 노후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자녀교육이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과로로 코피를 쏟아도 자녀교육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다.

자식의 학업과 성공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쳤지만 정작 자신은 빈곤과 고독에 내몰리게 되었다. 땀 흘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길이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아낌없이 주었던 그 자식들은 취업 준비생으로 썩어죽어 버렸고, 결혼은 안 하겠다고 부모 앞에서 서슴없이 선언하

고, 아이에게 행복을 줄 자신이 없다고 출산을 하지 않는다. 그럴진대 과연 우리나라에 미래는 있는 것인가? 자식 걱정을 하며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의 30년은 스스로를 걱정하며 살아야 할 판이다.

## 어쩌다 귀촌, '갈힌 삶이 되다.'

N씨(66세)는 서울 외곽에서 비철금속 소매상을 했다. 어린 나이부터 심부름을 하며 어깨너머로 배웠는데 이내 그것이 직업이 되었다. 사장님 소리도 들었던 좋은 세월도 있었다. 그러다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평생직업으로 여겼는데 시류를 이기기 어려웠다. 사업을 정리하고 나니 집 한 채와 얼마간의 돈, 그리고 연금만 남았다. 이참에 아예 도시 생활을 접고 귀촌해서 텃밭이나 가꾸며 살아볼까 하는 마음을 먹었다. 이것저것 조건들을 알아보고 귀농·귀촌 교육도 받아 보았다. 전원 생활은 매력이 있어 보였고 노후에 자연과 더불어 품위 있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내는 좀 시큰둥했지만 결국 마지못해 귀촌에 동의했다. 서울 근교는 땅값이 도시 못지않았다. 좀 떨어진 곳을 찾아서 땅을 구입했다. 그리고 다락이 있는 단층집을 지었다. 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예상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었다. 서울의 아파트는 월세를 주었다. 월세와 연금을 합치면 큰 걱정 없이 그러저럭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귀촌 생활이 1년 남짓 되었을 때, N씨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소식을 들었다. 작은 중소기업을 차려 사업을 하던 큰아들이 부도를 맞았다. 죽겠다고 난리 치는 큰아들을 살리느라 황금 알을 낳던 아파트를 처분했다. N씨는 이제 전원주택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는 빠르게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마침 동네 노인 일자리가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농사일에 바빠 이런 일거리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자리에 여유가 있었다. 한숨만

쉬던 아내도 하는 수없이 근처 초등학교의 급식도우미로 취직을 했다.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꿈꾸던 N씨 부부는 즐지에 생각지도 못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도시생활만큼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돈이 필요했다. 게다가 덜컥 병이라도 나면 겨우겨우 꾸려나가는 이 생활마저도 품비박산이 될 것이다. N씨는 앞날을 위해 일거리를 하나 더 잡으려고 알아보고 있다. 이제 N씨 부부는 탐탁지 않은 전원생활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 지금의 생활을 과연 몇 년이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들의 미래가 머잖아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갈 것만 같아 불안하기만 하다.

## 최고치의 노인 빈곤율, 그 해소 방안은 있는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2%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한다. 노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그 수치는 갈수록 더 높아질 전망이다. 게다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70년에는 46.4%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이고 그중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빈곤층이 되는 현실이 끔찍하기만 하다.

노인이 일하는 이유의 73.9%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이다. 이 답답한 상황에 정부는 오히려 노인 일자리와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로 전전공공할 수밖에 없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인들

최근 한국개발원(KDI)은 노인 빈곤율 해소책으로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은퇴 연령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혹여 '권 돌 빼서 뒷돌을 누르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촌마을을 여행하는 여유로운 노부부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를 하는 노인들

성문영 기자(sunggoodnews@naver.com)

홍천 산나물 축제

# 청정 홍천에서 자라난 산나물을 맛보러 오세요

물 맑고 좋은 공기 흠뻑 마시며 자란 봄 향기 가득한 제5회 홍천 산나물 축제는 4월 28일 금요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이 되었다. 지난 4월 28일 오전 10시 도시산림공원 토리숲 일원에서는 다양한 콘텐츠와 이색적인 체험이 펼쳐졌다. 이 행사는 홍천군 문화재단이 주관하고 홍천산채연구회 27개 농가를 비롯해 홍천산양삼협회, 임업후계자협회, 홍천군산림조합, 홍천축협이 참가해 산나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천 명품 농축산물을 선보였다. 한국 생활개선 홍천군연합회는 청정 홍천에서 자란 명이나물을 이용한 새로운 홍천 명이 핫도그를 선보여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으며 홍천축협은 맛 돈 시식회를 준비했다. 또한, 신장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산나물 도시락 전시 및 시식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산나물의 이름을 맞춰보는 퀴즈 이벤트, 경품을 받을 수 있는 돌림판 이벤트도 진행이 되었으며 임업인 노래자랑, 지역가수 및 동아리 공연 등 신나는 무대 행사는 축제의 흥을 북돋으며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축제를 둘러보는 도중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축제장을 방문하신 가족 관광객과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기 자 :** 안녕하세요. 축제장에 오셔서 둘러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광객 :** 오늘 이곳에 오니 체험 부스 중에 눈개승마라는 이름만 들어본 나물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신기했고 모종 심기 체험을 아이가 너무 좋아하네요. 다 함께 모종을 심어볼 수 있는 특색 있는 체험인 거 같아요.

**기 자 :** 다른 나물 축제와 차별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관광객 :** 아이들이 좋아하는 꼬마 기차놀이 기구와 야채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나물을 넣은 핫도그가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축제인 거 같아요.

**기 자 :** 마지막으로 나물 축제장을 방문할 때 아

쉬운 점이 있다면?

**관광객 :** 나물을 쌓아놓고 저울로 달아주는 정겨운 옛 모습은 볼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거 같습니다.

**기 자 :** 그렇군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는 축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3일간 약 3만여 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았으며 순수 농산물 판매액만 3억 1,000만 원에 달했다며 (재)문화재단 전명준 이사장은 “내년에는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복여 기자(boy1145@hanmail.net)

## 양곡 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양곡 관리법이란 정부가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거나, 수요 대비 생산량이 3%를 넘어가면 정부가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법이다. 현재 국회가 추진하는 양곡 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면 정부가 무조건 의무 매입을 해야 하고, 과잉 생산분 또한 무조건 전량 매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개정안 내용이 발표되어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해마다 쌀의 과잉 생산과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쌀이 남아돈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쌀농사 대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신품종 농작물을 연구 개발하여 농촌으로 보급을 하는 것에 힘써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쌀을 생산하는 농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쌀을 사들이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첫 번째는 시장의 질서가 위배 된다는 것이다. 농부들은 쌀이 과잉생산 되더라도 정부가 매년 남는 쌀을 사들이기 때문에 쌀의 생산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넘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비용 문제이다. 남는 쌀을 정부가 사는 비용이 매년 1조 원이며, 지난 2005년 이후 3,700만 석의 쌀을 매입해 보관만 하는데 5조 원을 썼다. 매년 10여만 톤이 90%는 사료용, 주정용으로 헐값 처분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버리는 꼴이다. 여기에 양곡관리법이 개정되고 쌀 매입이 의무화되어 초과 생산량이 늘어나면 연 40만 톤으로 늘어나 여기에 매년 1조 4,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또 써야 한다.

세 번째는 역차별 문제이다. 어느 해에는 감

자, 어느 해는 배추, 또 어느 해에는 고추가 풍작이면 쌀뿐만 아니라 이 남는 작물들도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요구가 생길 수 있다. 쌀농사 안 짓는 농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농업이 발전되었는가. 점점 더 굶아 갈 거며, 농민을 위한 것도, 농업을 위한 것도 아니다. 분명한 것은 농민에 대한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20년 사이 40%나 줄었다. 그렇다면 쌀농사도 당연히 40% 줄여야 한다. 그런데 농민들은 여전히 쌀농사를 선호한다. 이유는 상대적으로 경작하기 편하고 가격과 판매처도 사실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을 보호하는 정책의 핵심은 속절없이 생산되는 쌀을 강제로 매입하는 게 아니라 눈에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각 지방 특색에 맞는 특산물의 품질 좋은 종자를 연구하고 개발하여 농촌으로 보급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명국기자(kookcore@naver.com)

**홍천 거리 농경문화**

# 홍천 겨릿소 농경문화 보존 및 체험 행사



2023년 5월 12일, 강원도 겨리 농경문화 보존회(회장 조성근)에서는 홍천군 영귀미면 성수 개운길 268 소재의 논에서 10시부터 14시까지 '함께 하는 겨리 농경문화 시연 및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겨리질이란 두 마리의 소가 하나가 되어 비탈진 산자락의 논과 밭을 소리에 맞추어 갈고 씨앗을 뿌려 곡식을 거두게 하는 것을 겨리질이라고 한다. 두 마리의 소 중에서 겨리를 왼쪽에 맨 소를 '안소'라 하고 오른쪽에 맨 소를 '마라소'라고 칭한다. 농경이 중요했던 예전에는 겨리질에 소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으며 본인은 배를 즐기고 못 먹을망정 소

는 먹이를 먹었다고도 한다. 이번 농경문화 체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취재진을 포함한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홍천으로 찾아왔다. 체험에 앞서 겨릿소를 이용한 전통 씨레질을 진행해야 했으나 청주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전통 씨레질 시연 일정은 다음으로 연기가 되었다. 겨릿소의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쉬움을 뒤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행사에 참석한 다양한 연령대가 모두 하나가 되어 강원도 농민의 삶을 체험함으로써 농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모두 입을 모아 찬사를 보냈다.

고유의 기능과 예능을 보유한 홍천 겨리 농경문화 보존회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속으로 '강원 민속예술경연 대회'에 참가하여 연기상 3회 수상을 시작으로 '제56회 한국 민속예술축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20년 12월에 강원도 무형문화재 위원회를 통과한 후 2021년 5월 7일 최종으로 고시되어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이 되었다. 이는 홍천군의 첫 지정 무형문화재로 그 가치가 높으며 어른들은 옛 농촌의 그리운 향수를 느끼고 청소년들은 조상님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는 홍천의 겨리 농경문화가 된 것이다.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는 겨리 농경문화를 오늘에 있기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힘쓴 홍천 겨리 농경문화 보존회 조성근 회장 및 모든 임원들과 먼 거리에서도 행사에 참석하여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끝을 맺는다.

안태수(taesu9110@naver.com)

**한국의 금융과 자본(6)**

# 1980년대 '3저 호황' 시대

1980년은 암울한 해였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급서와 이어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발생한 정치적 혼란, 석유과동 등으로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산업구조 조정책으로 1980년대 중반에는 안정을 찾기 시작해 1986년 이후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라는 '3저 호황'의 호재를 만나 이후 3년간 연 12%의 고도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저달러'는 쌍둥이 적자에 시달려온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달러화의 평가절하를 용인한 데서 기인한다. 이로써 '엔고 현상'이 나타나 일본 제품에 대한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니 수출이 증대되고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다. '저금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각국은 제2차 오일쇼크 후 침체에 빠진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금리 인하 정책을 폈다. 1985년 이전 유로달러는 8%를 상회하였으나 1986년 이후로는 6~7%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국제 금리의 하락으로 한국의 외채 상환 부담이 덜어지니, 경상수지를 호전시킨 요인이 되었다. 1985년 12월 'OPEC' 회원국들은 고정 유가제를 폐지하고 시장점유율 확대 정책으로 선회하면



서 '저유가'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3저 호황'으로 한국의 수출은 매년 30% 정도 성장했고, GNP도 매년 12%대를 기록했다. '3저 호황'은 역설적으로 한국 경제가 지나치게 세계시장에 의존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3저'가 사라지는 1989년에는 한국 경제는 다시 침체에 빠지고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성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특히 심했다. 1990년대 들어 경기과열과 설비투자 증가로 일본과의 무역은 지속적 엔고현상으로 인해 대일 무역적자폭을 급격히 벌여놓았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첨단 산업이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던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일본의 덤핑 공세로 삼성반도체통신

(現 삼성전자)은 사업 철수 위기까지 불거졌으나 1985년 가을부터 '64KD램' 공장을 풀가동하고, 신제품 '256KD램' 양산 준비를 서둘러 폭발적 성장을 거듭한 삼성은 1993년에는 메모리 분야 세계 1위가 된다. 주식 시장도 활황이었다. '3저 호황'을 타고 모든 주가가 올랐다. 상장사도 1988년에는 500여 개로 늘어났다. 정부도 증시 활황을 적극 이용했다. 1988년 4월 포항종합제철(現 포스코)을 시작으로 다음 해 한국전력이 기업공개로 하여 국민 주 열풍을 일으켰다. 코스피 지수는 1989년 3월 31일 마침내 대망의 코스피 1,000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1989년 4월 1일 1,007을 고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1년 반 뒤인 1990년 9월 17일에는 566포인트까지 하락했다. 증권사로부터 빚을 내 투자한 개인들의 악성 매물이 쏟아지며 담보가치에도 미달하는 '강통계좌'가 속출했다. 1992년 1월 3일 정부는 외국인에게 주식시장을 개방했다. 아직 금융구조가 취약한 한국으로서는 1997년 벌어질 'IMF' 외환 위기의 불씨를 내포한 주식시장 개방이었을지도 모른다.

김민호 기자(minho215@hanmail.net)

사라지는 슬레이트 지붕

#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기름이 슬레이트의 골을 타고 흘러내리게 비스듬히 놓고 숯불에 삼겹살을 구워 먹던 시절이 있었다. 슬레이트는 새마을 운동 때 우리의 정겨웠던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새롭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리 좋고 날렵해 보이던 슬레이트는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었다.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빚어진 현실이다.

노후된 슬레이트 시료에는 암을 유발하는 백색면과 갈색면이 검출되었고 빗물을 통해 주변 토양까지 오염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학적으로 석면은 건강에 치명적인 폐암을 일으킨다고 한다. 홍천군에서는 그간 슬레이트 철거 신청을 받아 무료로 처리해 왔으며 올해도 신청을 받고 있다.

홍천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지붕을 개량하였으나 방치가 되어 있는 폐가의 경우에는 아직도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변 환경과 건강에 해가 되므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가족을 기르던 축사에도 아직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축산업은 한때 농촌 가정의 중요한 수입원이었으

나 대규모 축산 기업농으로 인해 사양길에 들어선 지가 오래이다. 외갓집 아래채에 메어 둔 소가 '음메~'하고 울던 그 정겹던 모습이 이제는 눈총을 받는 외양간이 되었다. 빠른 시일 내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여 언젠가는 모두 사라져서 깨끗한 환경으로 변모할 날을 기대해 본다.

폐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을 씌울 때 폐슬레이트 위에 덧씌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철거에 따른 불편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작업이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출된 폐슬레이트에서 발암물질이 유출되므로 모두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슬레이트 철거를 신청하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지만 나머지 시멘트 블록이나 열기설기 덮어둔 판자며 여러 가지 쌓아둔 생활폐기물들은 처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대개는 연로하신 분들이 시골집을 지키며 살고 있으므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고 노동력이 없어서 뒷정리를 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에는 아직도 수십만 채의 가옥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 어



느덧 13년째가 되었는데 2033년까지는 모두 철거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뤄지는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안전하게 시행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김순화 기자(hereme50@naver.com)

인생칼럼



석도익  
소설가

예로부터 노름하는 자식이나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일확천금을 노리며 하는 도박을 '노름'이라고 하며 이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직접 보고 겪은 사람들이 많다. 또한 이들은 친구나 친척의 빚보증을 서주고 보증을 서준 죄로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비밀비재하였기에 이러한 말이 생겨났을 것이다.

도박이야 지나친 욕심으로 하는 거라 욕심을 내려놓고 안 하면 되는 거지만, 보증을 서주는 것은 믿음과 나눔의 의협심이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불확실한 시대에 어쩌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신용보증을 서준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되어 변제해야 하고, 부동산이 압류당해 경

매에 넘어가 가족이 길거리에 나왔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사무실은 수시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보증이란 사람의 신용이나 사물의 품질 등에 대하여 틀림이 없이 믿을 만함을 책임지고 증명함을 말한다. 특히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이나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본인의 부동산이 있다면 근저당을 하면 되지만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은 재력 있는 사람이 연대보증을 하고 대출을 받아야 했다. 각별한 사이

그래서 제2금융권에서 계 형식의 저금을 들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 지난 날에는 성행하였는데 신용대출인 경우는 보증인이 필요하고, 대출뿐만 아니라 취직에 필요한 서류에도 재정정보증이나 신용보증인의 인감을 제출하고 서명을 해야 했다. 연대보증인도 아무나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친척이나 처가가 만만하고, 평소에 가장 친했던 친구 순으로 어렵게 부탁을 하게 된다.

필자가 금융기관에 근무할 때는

## 사람 사이에 믿음과 보증(保證)

가 아니고서는 연대보증을 한다는 것은 부탁하는 사람도, 부탁받은 사람에게도 망설여지긴 마찬가지다. 연대보증을 서면서 만약에 채무자가 채무 상환능력이 없어진다면 연대보증인이 대신해서 변제할 것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살아가기 위해서 무언가 시작하려고 밀전을 구하는 방법은 사채를 빌리든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 사채업자들은 높은 금리와 횡포 때문에 꺼려지고, 은행은 문턱이 높아 기웃거리기도 힘들다.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보증으로 소액대출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 살아가는 정과 인간관계가 엇보이기도 했다.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 중에는 자신의 재력과 신용을 자랑하며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보증 없이 대출 좀 해달라는, 자기 털도 안 뽑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척이고 친구고 간에 그 누구도 보증인을 못 구해서 서류작성도 못하여 제 털이라도 뽑아 제 구멍에 박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보증인을 감언이설로 꾀어

서 대출을 받고 안 갚아 보증인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대납하게 되는, 남의 털만 뽑는 사람도 있으나 이와 달리 은행에 보증인들이 찾아와서 서류작성을 하고 오히려 이 사람 대출 좀 잘 부탁한다며, 만약 못 갚게 되면 자기들이 갚겠다는, 자기 털도 남 주고 남의 털도 나에게 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 주위 사람들까지 마음을 따듯하게 만든다. 이를 보면 '인생을 얼마나 잘 못 살았으면', '얼마나 인생을 잘 살았으면'에 대한 답이 보인다.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보증 제도는 많이 달라져가고 있다. 이전에는 일상생활에서 꽤 남발하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정말 책임질 일이 늘어나서 제도 개선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대출보증, 1년 무상 보증(AS) 등 많이 생겨났다. 보험 분야에도 보증에 대한 보험이 있다.

어떤 계약을 할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사가 있어 보험에 들고 보험으로 해결되니 사람이 필요치 않아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져 가고 믿음이 약해지는데, 경제활동은 커지고 빈번해진 현대사회에 개인 이기주의는 더 폭넓게 굳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복지관 사업**

# 북방면 고령자 복지 주택 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북방면 고령자 복지주택 내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5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6주간 '노년사회화교육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범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장수요가, 건강댄스, 한문서예, 풍물놀이, 실버노래, 두뇌건강교실(치매예방), 인터넷기초 총 7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참여 어르신들의 만족도 및 선호도를 파악하고 7월부터 시작되는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행복한 노후 생활 준비를 위한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예술을 일상에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얼씨구 폼바! 절씨구 강강술래!' 한국무용과 '언박싱 꽃청춘' 그림자 연극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고령자복지주택 내 3층 옥상에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가꿀 수 있는 '더블리 옥상 텃밭'을 운영한다. 이 사업에서 고령자복지주택 내 어르신들이 모종 심기부터 재배 및 수확까지 직접 관

사업명	대상자	운영시간	내 용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홍천군 거주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매주 월, 화 13:00~15:00	디지털 역량 강화, 건강·재무·여가·대인관계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즐거운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얼씨구 폼바! 절씨구 강강술래!	홍천군 거주 60세 이상 노인	매주 월 10:00~13:00	몸의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감정 및 이야기를 움직임으로 창작하여 표현하는 한국무용 프로그램
언박싱 꽃청춘	홍천군 거주 60세 이상 노인	매주 목 13:00~14:00	그림자 연극 제작으로 미술, 연극,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경험하여 자신의 감수성을 표현하는 프로그램

리하며, 텃밭을 통해 고령복지주택 내 어르신이 서로 교류하고 수확한 작물은 주변에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주택에 입주했을 때부터 3층 옥상에 텃밭이 있어서 꼭 가꾸고 싶었어요. 전에 살던 집은 앞에는 마당이 있어 상추도 심어서 먹고 풀도 매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어요. 옥상 텃밭 사업에 참여하면 전처럼 무료한 시간을 달랠 수 있을 거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내가 심은 작물들이 잘 자라면 내가 살고 있는 옆집, 관리하는 사람, 복지관 직원들과 함

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애정을 갖고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며 텃밭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현윤재 관장은 "고령자 복지 주택 내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 노년사회화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취미·여가 생활과 급변하는 생활환경에서 단절 및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기 발전과 재능개발을 하여 21세기 일원으로 균형 있게 자리 잡아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운영 계획을 밝혔다.

## 2023년 북방면 노년사회화교육 시범운영

(수강기간: 2023.5.15. ~ 2023.6.23)

강의실	시 간	월	화	수	목	금
다목적 강당 (2층)	10:00~11:50	얼씨구 폼바! 절씨구 강강술래 (13시까지)-무용				
	13:00~14:50		건강댄스	풍물놀이	건강댄스	풍물놀이
	15:00~16:50	장수요가				
프로그램 3실 (2층)	10:00~11:50			두뇌건강교실 (치매예방활동)		스마트폰 하나로Up
	13:00~14:50	한문서예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문서예	언박싱 꽃청춘 (그림자연극)	브라보 마이라이프
	15:00~16:50					
노래 교실 (1층)	10:00~11:50				실버노래 (노래교실)	
	13:00~14:50	홍노복시네마 (영화감상-자율)		홍노복시네마 (영화감상-자율)		
	15:00~16:50					
정보화 교실 (2층)	10:00~11:50		인터넷 기초	고령운전자교육 2, 4주(09:30)~		인터넷 기초
	13:00~14:50	자	울	이	용	(13:00~14:50)
	15:00~16:50	자	울	이	용	(15:00~17:00)

\*자율 이용 프로그램: 인터넷, 홍노복시네마(영화감상)



◇건강댄스



◇두뇌건강교실



◇장수요가



◇인터넷 기초

북방면 고령자복지주택 2층 홍천군노인복지관 문의:430-8782